91호 2025 06월 15일
발행인:김화룡/ 편집인:김태식 / 편집:박시은 / 편집디자인: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3002-9090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21 1122 8827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apto, Jakarta Pusat

KOGA 통신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91

트럼프 관세 이슈,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KOGA) 회장단 및 상임사 모임 개최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indocity199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이재명, 21대 한국 대통령에 당선...최종 49.42% 득표로 승리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속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민심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전국 최종 투표율은 79.4%를 기록, 총 3524만4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10분 개표율 100%를 기준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728만7513표로 전체 49.42%를 득표했다. 1439만5639표를 얻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8.27%p차로 앞서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앞서 방송 3사(KBS · MBC · SBS)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7%를 득표해 과반을 넘길 것이라 예측됐지만, 최종적으로 과반을 하지는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야외무대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하며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겠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주권자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291만7523표로 득표율 8.34%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34만4150표로 득표율 0.98%를 기록했다.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를 얻었다.

무효투표수는 255만881표, 기권수는 915만5374표로 각각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전남이 85.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광주(84.77%) ▲전북(82.65%) 등으로 주로 호남권에서 득표가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47.13%를, 경기에서는 52.20%를 득표했다.

선관위는 4일 오전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위원회의를 개최해 당선인을 최종 확정한다.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는 즉시 대통령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그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BBC

인니 정부, 경기 부양책 개편...임금 보조금 두 배 인상, 전기료 할인 취소

▲자카르타 LRT 1B단계 건설 현장 노동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과 7월에 계획된 소비자 부양책 내용을 막판에 일부 변경했다. 전기료 할인을 취소하는 대신 임금 보조금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금을 개인당 월 15만 루피아에서 30만 루피아로 두 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혜 대상에는 월 최대 350만 루피아를 버는 약 1,730만 명의 근로자와 계약직 교사를 일컫는 '명예 교사' 약 56만 5천명이 포함된다.

보조금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사회보장기관(BPJS Ketenagak-erjaan)이 조달하지만, 정부가 국고에서 10조 7,200억 루피아를 따로 마련해 이 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임금 보조금은 소비자 지출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환이다.스리 장관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소비자 지출 부양책에는 총 24조 4천억 루피아가 필요하다.

지난달 처음 발표된 이 부양책에는 기차, 비행기, 선박에 대한 교통비 할인과 도로 통행료 할인 등 6개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었다.또한 1,830만 명의 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노동 집약적 산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할인도 포함된다.

당초 이 부양책에는 6월과 7월의 전기요금 50% 할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이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전기료 할인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 과정이 훨씬 더디게 진행되어 6월과 7월에는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소된 전기 요금 할인 대신 임금 보조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 할인이 취소된 경위는,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이 이끄는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에도 이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정책은 에너지부를 통해 국영전력회사 PLN에 공식적으로 실행을 지시할 수 있는데, 에너지부와 재무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바흐릴은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무역부, 484개 품목 수입 규제 완화 추진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무역부는 기존의 수입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포괄적 수입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역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조건과 쿼터를 부과하는 무역부 규정 제36/2023호와 제8/2024호를 폐지하고, 포괄적인 새 수입 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지만, 아직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수입 규제 완화 대상은 총 484개의 품목으로,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는 품목들로 임산물, 식품용기, 보조비료, 기타 연료, 플라스틱 원자재 등 5개 분야가 포함된다. 두 번째 그룹은 기존 여러 서류 대신 조사(감정)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품목들이다.

특히 의류 및 액세서리 완제품 322개 HS 코드는 무역부의 수입 승인(PI)을 위한 데이터 검증 절차가 없어지며, 산업부의 기술 승인(Pertek)만 획득하면 된다.

반면, 쌀, 석유, 철강 등 3개 분야의 2,495개 HS 코드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밀, 대두, 면화, 석유 및 가스 시추 장비 역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협상 타결을 위한 전략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는 이번 규제 완화가 섬유 수입을 촉진해 미국과의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8,29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기 위해 철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식품용기 수입을 무관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 가능한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루훗 빤자이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식판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트럼프 관세 이슈,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KOGA) 회장단 및 상임사 모임 개최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KOGA)는 지난 5월 17일 자고라위 골프클럽에서 회장단 및 상임사 모임을 개최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KOGA)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 자고라위 골프클럽에서 회장단 및 상임사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KOGA를 대표하는 한솔, 세아, 한세, 대한 등 주요 상임사를 비롯해 김화룡 회장, 수석부회장 이규백 · 서광호, 지역부회장 김흥기 · 이정희 · 윤정민, 자문위원 황삼연, 사무국 대표 등 총 24명이 모임에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인도네시아 봉제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봉제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앞으로 협회의 역할 강화와 회원사간 소통 증진에 적극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김화룡 회장은 "현재의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회원사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내 한인 봉제업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KOGA는 앞으로도 정기적 모임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회원사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봉제 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인포스트 동포사회부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기술OK 신뢰OK 안전OK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I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I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요.

SAMSUNG 삼성물산 OTIS ThyssenKrupp Dongyang Elevator MITSUBISHI ELECTRIC Schindler

인니-중국 정상회담 자국 통화 결제 · 투자 · 공중보건 등 12개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리창 국무원 총리와 프라보워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제공]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5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미중 관세전쟁 휴전 이후 리창 총리의 첫 동남아 순방 일정으로, 양국은 무역 · 금융 ·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 12건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루피아 · 위안화 직접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55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협정을 기반으로, 미국 달러 의존도 감소 및 역내 금융 안정성 제고가 목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호주 · 말레이시아 · 한국 등과 유사한 통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 국부펀드와 인도네시아의 신생 국부펀드 다난타라 간 투자 협정 체결. 구체적 투자 분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에너지, 원자재(특히 니켈), 인프라 부문이 유력하다. 일대일로 연계 프로젝트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배터리 공급망 구축 등 기존 협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리창 총리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확산이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다극화된 세계를 위해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갈등의 중간지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경제적 실익 확보 및 전략적 균형 유지를 꾀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리창 총리는 인도네시아 방문 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중국-ASEAN-GCC 정상회의에도 참석, 중동 및 아세안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된 12개 협정은 다음과 같다:

△통화 협력: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간 자국 통화 거래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

△경제 정책 협력: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개발 정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산업 및 공급망 파트너십: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중국 상무부 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양국 산업단지 이니셔티브: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중국 상무부, 푸젠성 정부 간 3자 양해각서

△관광 협력: 인도네시아 관광부와 중국 문화관광부 간 관광 분야 협정

△농산물 무역: 인도네시아 농업검역청과 중국 해관총서 간 농산물 수출 관련 협력

△전통의학 및 결핵 방역: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간 협력

△공중보건 협력: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관리국 간 결핵 예방 및 통제 협력

△투자 협정: 인도네시아 다난타라(Dananatara)와 중국투자공사 간 투자 파트너십

△전략적 비즈니스 협력: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와 중국상공회의소(인도네시아 지부) 간 협정

△언론 협력: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안따라와 중국중앙방송 간 양해각서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세율 인상 없이 세수 늘리겠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세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2일 전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수석고문이자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는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세율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심은 21일,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여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율과 세수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세율을 인상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하며,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캄보디아나 베트남 수준으로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에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수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2021년 GDP 대비 세수 비율이 9.1%에 불과해 동남아시아 중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2.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동남아시아 신흥 경제국 중 캄보디아는 18%, 필리핀과 태국은 약 15%, 베트남은 14.7%, 말레이시아는 11.9%의 세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심은 정부가 세율을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세율 인하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 서비스 회사인 PwC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기업 소득에 대해 17%의 고정 세율을 부과하고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 공제 및 공제에 따라 0~24%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역대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낮은 납세 준수율, 비효율적인 세율, 좁은 과세 기반 등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이전에 4월 1일 마감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1,234만 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중 1,200만 명은 개인 납세자이고 나머지는 법인이었다.

이는 지난해 세금 신고서 제출 건수인 1,270만 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신고 대상 납세자의 81.92%인 1,621만 명이라는 국세청의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도 올해 기업 수익 약세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이는 세수입이 18% 감소하고 비과세수입이 26% 감소하여 관세 및 소비세 수입이 12.3% 증가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감소는 부분적으로 올해 초 새로운 코어택스(Coretax IT)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일부 납세자가 나중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데 기인한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 감소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3월 수치가 "희망적인 개선의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나몬 은행의 경제학자 호시안나 에발리따 시뚜모랑은 4월 30일 분석에서, 정부 수입 감소는 "상품 관련 소득 약세와 2024년 초 횡재 수입에 따른 기저 효과"에 기인한다고 적었다.

또한 세수 감소는 "특히 자원 기반 산업에서 기업 수익과 노동 소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작년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 세수에서 법인 소득세가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또는 상품 및 서비스가 28.2%로 그 뒤를 이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탈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인도네시아 새로운 코로나 변이, 싱가포르에서 유입 가능성 커

최근 싱가포르에서 확산 중인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학자 디키 부디만은 해당 변이가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18일 경고했다.

특히 이 변이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우세한 JN.1 변이의 파생형인 LF.7 및 NB.1.8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싱가포르는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확진자 수는 11,100건에서 14,2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일일 평균 입원 환자 수도 102명에서 133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환자실(ICU) 입원 환자 수는 평균 2건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통계는 새로운 변이의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인도네시아 내 추가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변이의 유입 가능성

디키 부디만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간 높은 이동성이 새로운 변이의 유입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변이가 더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 면역력 저하 현상도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최근 면역력 감소는 지난 2년간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은 상당히 감소했다"며, "이전 감염 후의 면역력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예방 조치 권장

디키 부디만은 특히 고위험군을 위한 부스터 백신 접종 등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 관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이 COVID-19 및 기타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접종, 특히 취약계층의 중증 감염 예방을 위한 면역력 유지가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관리 가능하며, 호흡기 감염병의 잠재적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당부하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

또한, 디키 부디만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싱가포르발 여행자에 대한 국제 여행 감시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새로운 변이의 인도네시아 내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진다.

새로운 변이가 더 위험하지 않더라도, 확진자 급증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의료 시스템이 인도네시아 내 잠재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속적인 방역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함변의 법률상식

인도네시아 정부 감사 및 규제 조사 대응 전략

변호사 함상욱

PT PMA(외국인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양한 규제기관으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사업 활동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재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1. 인도네시아 정부 감사의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사는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사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조정위원회(BKPM): 외국인 투자 실적 및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 세무청(DJP):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및 납부 관련 감사

– 노동부(Kemnaker): 고용 규정 준수, 외국인 근로자 비자 관련 점검

– 환경부(KLHK): 환경영향평가(AMDAL) 및 배출 기준 준수 점검

이외에도 지자체 감사, 산업별 감독 기관의 현장 점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전 감사 대응 체계 구축

감사에 대한 대비는 단기적 대응보다 중장기적인 체계 수립이 효과적입니다.

① 문서 정리 및 보관 시스템

– 투자 허가서류, 세무신고서, 노동계약서, 환경보고서 등을 디지털 및 인쇄본으로 체계적으로 보관

– BKPM 보고 자료는 연 2회 이상 검토하여 허위 보고 방지

② 내부 감사팀 또는 담당자 지정

– 감사 대응을 총괄하는 법무 또는 재무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

– 외부 회계법인 및 로펌과의 사전 협약 체결

③ 감사 대응 매뉴얼 개발

– 기관별 질문 유형, 응답 방식, 문서 제출 포맷 등을 포함한 매뉴얼 구축

– 주요 임직원 대상 시나리오 기반 교육 실시

3. 불시 감사에 대한 즉각 대응 방안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현장 조사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① 응대 태도와 역할 분담

– 감사관에게 협조적이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

– 담당자 외 응대 자제 및 비공식 발언 금지

② 문서 제공 및 입장 표명

– 요청 문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입장은 문서화하여 제출

– 모호한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보다 검토 후 회신을 원칙으로

③ 기록화 및 사후 점검

– 모든 감사 과정은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

– 감사 종료 후 조치 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리스트화

4. 내부 법적 리스크 점검과 개선

감사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적 계약 검토

– 협력사 및 직원과 체결된 주요 계약서의 법적 유효성 검토

– 중재 조항, 분쟁 해결 조항 삽입 여부 확인

② 회계 투명성 확보

–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장부 정리, 내부 감사 연 1회 이상 시행

– 세무 자문을 통한 신고 내역 검토

③ 인허가 및 보고 체계 점검

– OSS 시스템 기반 인허가 갱신 여부, 환경보고 주기 체크

– 투자자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재점검

맺음말

인도네시아의 규제 환경은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감사를 통해 갑작스럽게 리스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위기보다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PT PMA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감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FIRM, ATMOS LAWFIRM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재,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 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KEMEN-KUM 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담습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설치비 X , PLN전기료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료 납부

운영비 X ,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섬유패션 상장기업 1분기, 10곳 중 7곳 수익성 '뒷걸음'

수출 기업 선방…국내 소비 부진에 패션업계 '양극화'
2025년 1분기 74社 실적,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감소

올해 1분기 섬유·패션 상장사 10곳 중 7곳이 영업이익 감소에 직면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섬유·패션 상장사 74곳 중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거나 성장한 곳은 24곳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국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 압박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에 상장된 2024년 섬유·패션 기업 74개사의 총 매출은 10조 69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6612억 원을 기록했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6.2%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지난해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 62원의 이익을 낸 셈이다. 평균 순이익은 전년 대비 29.8% 상승했다.

■수출, 제이에스코퍼레이션·영원무역 매출·영업이익 모두 성장

수출 업종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좋은 실적을 냈다. 패션과 면방은 매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반면 화섬은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1.4% 증가했다. 전체 74곳 중 7곳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0곳은 적자로 돌아섰으며 16곳은 적자가 지속됐다.

수출 업종 9개사는 원화 상승 등의 영향으로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1%, 20.4% 증가했다. 윌비스와 SG세계물산을 제외한 7개사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온타이드와 호전실업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은 매출(+41.6%)과 영업이익(+47.0%), 분기순이익(+30.2%) 등 모든 지표가 30% 이상 급등했다. 호텔 사업과 핸드백·의류 부문 주문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핸드백과 의류 제조 부문 매출은 각각 13.9%, 31.1% 증가했다.

수출 업종 1위 기업인 영원무역은 매출(8114억 원)과 영업이익(823억 원)이 각각 14.3%, 15.9% 증가했다. 제조 OEM과 자회사 스캇(SCOTT) 부문 매출이 각각 17.5%, 15.3% 늘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도 매출이 22.6% 늘어난 423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51.9% 급등한 134억 원을 달성했다.

면방과 화섬 업종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면방 7개사는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지속됐다. 매출은 경방, 대한방직 등 4곳이 증가했다. 화섬 업종 6곳 중 휴비스(+7.2%)만 매출이 올랐고 5곳은 감소했다. 성안머티리얼스·태광산업·휴비스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 패션, 매출 3000억 원 이상 6개사 중 5곳 실적 악화

패션 업종 소속 45개사 대부분은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평균 매출은 2.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5.0% 감소했다. 내수 소비 침체와 함께 신규 브랜드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한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매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 6곳(미스토홀딩스·F&F·삼성물산 패션부문·LF·한섬·신세계인터내셔날)은 대부분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패션 브랜드 매출이 적은 LS네트웍스 제외). 이중 매출이 증가한 곳은 미스토홀딩스(휠라홀딩스)뿐이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LF(22.3%)다.

이들 6개사의 평균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0.2%)이고 영업이익은 9.3% 감소했다. 이들이 전체 패션업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4%로 작년보다 1.2%포인트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 비중은 91.7%로 6.5%포인트 증가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비비안과 제이에스티나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 이는 다양한 유통 채널 활용과 생산 효율성 제고에 집중한 결과다. 반면 적자 전환되거나 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17곳에 달했다.

패션 업종에서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크리스에프앤씨(+74.4%)였다. 이어 폰드그룹(+40.9%), 감성코퍼레이션(+25.5%), 신원(+20.5%) 순이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 '파리게이츠(PEARLY GATES)', '세인트앤드류스(ST.ANDREWS)' 등의 브랜드를 전개하며 제품·상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감성코퍼레이션과 폰드그룹은 매출·영업이익·순이익 전 부문에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스노우피크 어패럴'을 전개하는 감성코퍼레이션은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5% 증가한 46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8.2% 증가했다.

영업이익 신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형지글로벌로 전년 대비 283.5% 급등했다. 이어 패션플랫폼(+75.5%), 제로투세븐(+70.8%), 감성코퍼레이션(+48.2%) 순이었다. 형지글로벌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비용 외의 각종 운영비를 과감히 축소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2025년 1분기 섬유패션 상장기업 결산 실적(74사) (단위:억원)

구분	회사명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이익률	순이익	증감률	이익률
면방(7)	SG글로벌(연결)	230.8	-8.6%	19.2	-5.9%	8.3%	13.2	-62.7%	5.7%
	경방(연결)	1,022.7	4.4%	108.3	-16.9%	10.6%	40.1	159.9%	4.2%
	대한방직(연결)	307.8	10.5%	-5.1	적지		-9.0	적지	
	다이이찌임섬(연결)	1,625.1	-2.2%	15.6	-65.4%	1.0%	-14.9	적전	
	*방림(연결)	304.0	17.0%	-1.3	적지		7.4	32.4%	2.4%
	일신방직(연결)	1,364.3	0.4%	28.1	-1.3%	2.1%	189.6	460.7%	13.9%
	전방(연결)	128.3	-18.3%	-11.1	적지		330.8	10227.0%	257.9%
	소계	4,983.1	0.7%	153.6	-20.8%	3.1%	560.2	323.5%	11.2%
화섬(6)	대한화섬	287.2	-15.7%	-1.7	적전		78.4	73.2%	27.3%
	성안머티리얼스(연결)	43.4	-48.8%	11.6	흑전	26.8%	-6.2	적지	
	태광산업(연결)	5,075.0	-8.5%	27.1	흑전	0.5%	758.4	91.0%	14.9%
	티케이케미칼	870.2	-3.2%	-15.8	적지		614.7	563.3%	70.6%
	*효성티앤씨(연결)	7,538.4	-1.6%	508.1	-1.8%	6.7%	-	-	-
	휴비스(연결)	2,401.0	7.2%	63.6	흑전	2.7%	33.2	흑전	1.4%
	소계	16,215.4	-3.3%	593.0	61.4%	3.7%	1,478.3	274.2%	9.1%
수출(9)	SG세계물산(연결)	337.4	-7.5%	-8.2	적지		2.3	-912.6%	0.7%
	F&F(연결)	2,572.0	13.5%	152.5	31.0%	5.9%	86.5	189.9%	3.4%
	*영원무역(연결)	8,113.5	14.3%	823.2	15.9%	10.1%	702.3	-11.4%	8.7%
	온타이드(연결)	616.9	14.0%	35.7	흑전	5.8%	2.9	-106.5%	0.5%
	윌비스(연결)	487.0	6.4%	-6.0	적지		-36.1	-8.7%	-7.4%
	제이에스코퍼레이션(연결)	2,936.9	41.6%	283.4	47.0%	9.7%	142.0	30.2%	4.8%
	한세실업(연결)	4,672.7	13.5%	202.8	-46.8%	4.3%	94.4	-47.8%	2.0%
	호전실업(연결)	1,047.6	30.2%	44.0	흑전	4.2%	9.7	-179.3%	0.9%
	화승엔터프라이즈(연결)	4,234.3	22.6%	134.2	151.9%	3.2%	10.2	-156.5%	0.2%
	소계	25,018.3	18.1%	1,661.6	20.4%	6.6%	1,014.1	1.6%	4.1%
기타(7)	다케이엔다(연결)	334.9	31.9%	17.7	-31.9%	5.3%	14.1	-44.9%	4.2%
	레몬	9.5	-67.8%	-15.4	적지		-14.8	적전	
	삼영통상(연결)	484.1	-1.2%	50.1	-6.6%	10.4%	32.1	60.2%	6.6%
	월크론(연결)	743.3	-23.9%	-9.6	적전		-27.0	적전	
	유니켐	216.6	33.0%	11.9	2655.6%	5.5%	10.9	흑전	5.0%
	일창실업(연결)	100.0	-12.7%	11.5	91.6%	11.5%	121.2	1793.9%	121.2%
	조광피혁	257.5	2.7%	24.8	-17.5%	9.6%	30.9	-23.8%	12.0%
	소계	2,145.9	-5.8%	91.0	-26.9%	4.2%	167.5	68.5%	7.8%
패션(45)	감성코퍼레이션	466.8	25.5%	68.5	48.2%	14.7%	57.1	11.7%	12.2%
	공구우먼(연결)	88.4	-11.6%	11.9	-32.8%	13.4%	12.8	-26.6%	14.5%
	그리티(연결)	410.5	0.7%	12.6	-41.7%	3.1%	10.0	-40.8%	2.4%
	대현	630.9	-14.6%	10.6	-78.2%	1.7%	23.8	-53.6%	3.8%
	더네이처홀딩스(연결)	1,287.9	1.2%	95.1	35.2%	7.4%	85.6	10.4%	6.6%
	미스토홀딩스(휠라홀딩스 연결)	12,375.0	4.6%	1,626.7	-0.4%	13.1%	1,514.6	22.8%	12.2%
	배럴(연결)	113.4	-2.5%	12.1	2.8%	10.7%	3.8	-31.5%	3.4%
	블랙야크아이앤씨(연결)	69.4	12.1%	11.0	-12.0%	15.9%	-22.7	적전	
	비비안(연결)	571.6	12.3%	16.8	흑전	2.9%	-19.6	적지	
	*삼성물산 패션부문(연결)	5,043.8	-2.5%	341.8	-36.8%	6.8%	-	-	-
	*신성통상(연결)	2,965.5	1.1%	-159.6	적지		-122.2	적지	
	신세계인터내셔날(연결)	3,041.9	-1.7%	46.7	-58.3%	1.5%	46.1	-64.2%	1.5%
	신세계톰보이	483.7	-16.8%	4.4	-88.0%	0.9%	0.6	-97.9%	0.1%
	신영와코루(연결)	462.0	-4.7%	19.8	39.1%	4.3%	19.9	4.7%	4.3%
	신원(연결)	2,595.5	20.5%	62.0	-33.5%	2.4%	-15.7	적전	
	쌍방울(연결)	196.4	-7.7%	-16.8	적지		-16.5	적지	
	아가방컴퍼니(연결)	443.7	-1.4%	13.6	-33.4%	3.1%	8.6	-28.9%	1.9%
	아즈텍WB	62.0	-27.5%	-1.9	적전		4.1	92.6%	6.7%
	에스제이그룹(연결)	442.8	-7.8%	-30.7	적전		-40.3	적전	
	에스티오(연결)	159.9	0.0%	-6.6	적지		-10.9	적지	
	원풍물산	52.6	-27.4%	-9.3	적전		-11.1	적지	
	윈스꼬	70.7	-0.9%	-8.2	적지		-70.7	적지	
	인디에프(연결)	248.8	-7.5%	-10.7	적지		-17.9	적지	
	제로투세븐(연결)	181.6	13.8%	12.8	70.8%	7.0%	10.0	408.6%	5.5%
	제이에스티나	175.2	-7.2%	6.5	흑전	3.7%	6.7	흑전	3.8%
	젝시믹스(연결)	507.6	-4.5%	7.9	-76.7%	1.6%	8.8	-66.9%	1.7%
	좋은사람들(연결)	159.9	-19.8%	-22.4	적전		-23.0	적전	
	지엔코(연결)	249.6	-17.0%	-1.7	적지		-30.6	적지	
	진도	156.3	1.7%	9.0	42.2%	5.8%	9.8	46.6%	6.3%
	코데즈컴바인(연결)	83.4	-8.2%	4.4	-23.3%	5.3%	15.6	66.0%	18.7%
	*크오롱인더	2,628.8	-4.1%	-6.8	적전		-	-	-
	크리스에프엔씨(연결)	1,222.1	74.4%	-13.8	적전		151.4	흑전	12.4%
	토박스코리아(연결)	92.7	-9.2%	-2.2	적전		-4.6	적전	
	티비에이치글로벌(연결)	404.5	-0.8%	-27.8	적지		-26.8	적지	
	패션플랫폼(연결)	231.7	-6.3%	16.2	75.5%	7.0%	11.6	35.7%	5.0%
	폰드그룹(연결)	1,965.3	40.9%	144.3	40.4%	13.5%	92.4	45.5%	8.7%
	한섬(연결)	3,803.2	-3.4%	217.8	-32.9%	5.7%	183.5	-22.4%	4.8%
	한세엠케이(연결)	615.4	-8.6%	-81.2	적지		-107.8	적지	
	형지I(연결)	119.3	-16.5%	-17.1	적지		-21.1	적지	
	형지글로벌(패스웨이삭 · 연결)	85.8	-35.6%	11.1	283.5%	13.0%	6.7	143.0%	7.8%
	*형지엘리트(연결)	352.7	-7.5%	-13.9	적전		-23.0	적전	
	BYC	353.4	-8.8%	42.0	-18.4%	11.9%	32.0	-19.4%	9.1%
	F&F(연결)	5,056.2	-6.3%	1,236.2	-5.1%	24.4%	825.7	-14.3%	16.3%
	LF(연결)	4,302.5	-3.7%	301.0	22.3%	7.0%	228.7	8.9%	5.3%
	*LS네트웍스(연결)	4,441.9	15.7%	180.3	0.2%	4.1%	17.9	-70.3%	0.4%
	소계	58,562.2	2.3%	4,112.5	-15.7%	7.0%	2,801.4	-7.1%	4.8%
총계(74개사)	합계	106,924.8	4.4%	6,611.7	-4.8%	6.2%	6,021.5	29.8%	5.6%

*흑전=흑자전환, 적전=적자전환, 적지=적자지속
*방림은 9월 결산법인(25.01.01~25.03.31까지 2분기 실적).
*신성통상 · 형지엘리트는 6월 결산법인(25.01.01~25.03.31까지 3분기 실적).
*효성티앤씨 · 삼성물산 · 코오롱인더는 섬유 또는 패션부문만 별도 집계.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연결 기준 매출 1조57억원, 영업이익 1325억원, 각각 12.7, 12.4% 성장.
*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 몽벨 등 브랜드 매출(257.2억원)과 영업이익(39.8억) 각각 -22.4%, -19.5%.

이노비즈협회, 인도네시아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양성 2주간 초청연수
현지 공정 혁신 본격화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 수료식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제공

이노비즈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 및 중소기업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인도네시아 산업전환을 위한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이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운영됐다. 연수 대상은 인도네시아 협동조합부 공무원, 비누스대학교 관계자, 스마트팩토리 도입기업의 기술인력 등 총 20명이다.

협회는 연수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의 스마트팩토리 교육 및 실습 △국내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현장견학 △인공지능(AI) 및 혁신기술 전시 참관 △액션플랜 발표 등 실무 중심의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정부 ODA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에는 비누스대학교 내 '한-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현지 기업의 공정개선과 기술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수료식에서 "올해 3년차를 맞은 인도네시아 ODA 사업은 지금까지 전문인력 60여명을 양성하고, 6개 현지 기업의 공정개선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팩토리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연수단과의 차담회에서 "현지 제조현장의 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기대하며, 지난해 개소한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가 실무형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기술은 섬유 산업의 녹색 전환의 핵심.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고방식과 운영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술은 강력한 변화의 열쇠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은 경제 의 중요한 수출 분야 중 하나로서 전례 없는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시장 변동,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고객 요구,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업계는 사고방식과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혁신은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섬유 산업이 지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길이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고방식과 운영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은 주문 감소, 투입 비용 증가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 시장은 상품 원산지, 탄소 배출,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은 현대 기술에 투자하고, 공급망을 재구조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베트남 섬유 및 의류 협회(VITAS)의 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쯔엉 반 캠(Truong Van Cam) 씨는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직도 주로 가공 단계에 있으며, 수출 가치는 높지만 실제로 얻는 가치는 그에 비례하지 않다. 돌파구를 찾으려면 기업은 기술, 디자인, 원자재 자립, 디지털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

혁신적 사고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는 에이버리 데니슨이 선저우 그룹과 손을 잡고 호치민 시에 합작 공장을 준공한 사건이다. Avery Dennison Worldon Vietnam 공장은 RFID 스마트 라벨과 Embelex 디지털 식별 제품을 포함한 첨단 의류 제품 및 솔루션 제조를 전문으로 한다.

이러한 제품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제조 역량을 촉진한다.

에이버리 데니슨 그룹의 대표인 마이클 바튼은 "우리는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에 대비한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브랜드의 성공을 돕고 업계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섬유 산업의 녹색화를 향한 열망

전 세계가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책임 있는 소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섬유 산업에서 '녹색화'라는 개념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녹화 열망은 전국의 기업과 지역 사회의 구체적이고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을 통해 점차 실현되고 있다. 섬유 산업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제때 변화하지 않으면 섬유 및 의류 산업은 고급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친환경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트룽 반 캠 씨는 강조했다.

많은 선구적 기업들은 규정이 의무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주 일찍부터 청정 기술, 에너지 절약 공정, 현대적인 폐수 처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베트남 섬유 및 의류 협회는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가 국내 공급망 발전의 핵심 요소인 섬유 및 염색 산업 단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녹색 기술 투자 프로젝트와 스마트 공장에 대한 우대 신용 정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캠 씨는 장기적으로 섬유 산업에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자재 지역 계획, 고품질 인력 교육, 무역 진흥 지원, 베트남 브랜드 구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부 업계 전문가 역시 베트남 섬유 산업이 영원히 '저렴한 가공'의 위치에 머물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려면 리더십 사고, 생산 기술,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베트남 브랜드 제품이 국제적인 선반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큰 놀이터"에서 활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출처: https://congthuong.vn/cong-nghe-la-chia-khoa-cho-nganh-det-may-chuyen-minh-xanh-hoa-388910.html

---

김재훈의 세무상식

직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

김 재 훈 대표

지난 2023년 6월 27일에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PMK 66/2023이 공표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회사가 직원 개인에게 제공되었던 아파트, 편의시설 등 현물과 음식, 골프멤버십 등 향응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회사가 개인 급여등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조세조화법 (HPP) 제 4조 (3)항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금은 소득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PMK No. 68/PMK/03/2020 규정하고 있는데 제 2조 2항에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장학금 수혜자는 인도네시아 시민권자(WNI) 이어야 한다.

둘째, 국내 및/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 특정 요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서제외 된다.

a. 장학금 수요 기관의 납세자는 비즈니스 관계, 소유권 관계 또는 통제 관계에 있는 경우

b. 장학금 수요 기관 납세자는 소유주, 감사, 이사 또는 관리자가 혈연 또는 직계 및/또는 1촌의 혈연 관계인 경우

c. 장학금을 수여하는 개인 납세자와 사업관계가 있는 경우

위에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한국인 임직원 자녀에게 제공하는 학비는 해당 임직원의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l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세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kimjhoon@bngconsulting.co.kr

인도네시아 비자 및 체류 허가 신청 상태,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및 체류 허가 신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이민국(Direktorat Jenderal Imigrasi)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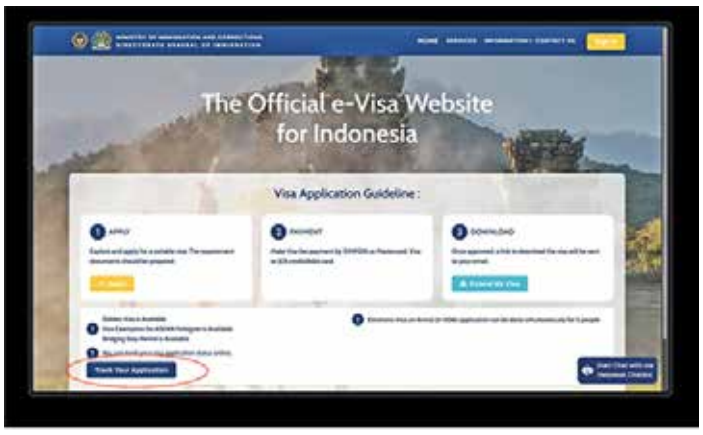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입국을 준비하는 외국인이나 그들의 보증인(스폰서)은 이민국이 마련한 공식 플랫폼을 활용해 불필요한 대기와 반복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신청자의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태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비자와 체류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각종 문서 제출, 심사, 추가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만큼, 신청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 상태 확인, 단계별 절차 안내

신청자는 먼저 인도네시아 이민국 공식 온라인 플랫폼(evisa.imigrasi.go.id)에 접속해야 한다. 웹사이트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Home'을 클릭하면, 신청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비자 및 체류 허가 신청 상태, 쉽고 빠르게 확인 체팅

'Track Your Application(신청 조회)' 기능이 보인다.

이 기능을 선택하면 곧바로 서비스 종류(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Visa' 카테고리에서는 관광, 업무, 방문 등 각종 비자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Stay Permit' 카테고리에서는 도착 후 비자 연장, 단기 또는 장기 체류 허가 신청 등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처럼 신청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카테고리가 다르므로, 자신이 진행 중인 서비스에 맞는 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화면에서는 'Register Number(등록번호)'와 'Passport Number(여권번호)' 입력란이 나타난다. 등록번호는 해당 비자

또는 체류 허가 신청 접수 시, 웹사이트 화면 내 신청자 이름 좌측에 표시되는 고유 서비스 번호로, 향후 신속한 조회와 문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다. 여권번호 역시 신청 내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므로 정확한 입력이 필수적이다.

비자 및 여행문서국장 타토 줄리아딘 히다야완(Tato Juliadin Hidayawan)은 "모든 신청 내역은 이 두 가지 정보(등록번호 및 여권번호)를 기반으로 개별 조회되며, 입력이 누락되거나 틀릴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신 상태 실시간 조회 및 안내 사항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최신 비자 또는 체류 허가 신청 상태가 화면에 즉시 표시된다.

표시되는 정보에는 현재 진행 단계, 추가 심사 필요 여부, 서류 보완 요청, 최종 승인 여부, 발급 대기 상태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이민국 담당자의 별도 안내 사항이나 유의사항 등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민국은 기술적 장애나 오류로 인해 접근이 불가할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도 제공한다.

타토 줄리아딘 히다야완 국장은 "조회 과정에서 에러 메시지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화면을 캡처해 등록번호, 여권번호, 오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사이트 우측 하단의 'Help-desk Imigrasi'로 문의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로그인 후에는 신청자 또는 보증인(스폰서) 신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원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성 · 효율성 대폭 향상, 현지 방문 없이 모든 정보 확인 가능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자가 직접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확인을 요청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인터넷이 연결된 어떤 기기에서든 실시간으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보증인(기업, 기관, 가족 등)에게도 큰 효율성을 제공한다.

타토 국장은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며 "국제 방문객과 외국인 체류자들의 만족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요컨대, 인도네시아 비자 및 체류 허가 신청을 진행 중인 모든 외국인은 evisa.imigrasi.go.id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더욱 투명하고 고객 중심의 이민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인포스트

Perkins Cummins YANMAR MITSUBISHI FAW DEUTZ mtu ISUZU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 매 임 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 형 5kVA ~ 220kVA | 중 형 250kVA ~ 700kVA | 대 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제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 성 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2025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5/25)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1	BANGUN MAJU LESTARI	2025.01.13	50 Juta		
2	NOTOS (WOOIN)	2025.01.13	15 Juta		
3	TRADEWIND INDONESIA	2025.01.13			3,5 Juta
4	DAEDONG INTERNATIONAL	2025.01.13			3,5 Juta
5	MYUNGSEONG MACHINERY	2025.01.13			3,5 Juta
6	UNGARAN INDAH BUSANA	2025.01.13			3,5 Juta
7	SEYANG ACTIVEWEAR	2025.01.13			3,5 Juta
8	SAMSAM JAYA	2025.01.13			3,5 Juta
9	SEYOUNG INDUSTRY	2025.01.13			3,5 Juta
10	AAB	2025.01.13			3,5 Juta
11	BLUE ROSE NARADO	2025.01.14			3,5 Juta
12	PURNAMA ASIH SUR	2025.01.14			3,5 Juta
13	INKORDAN	2025.01.14	15 Juta		3,5 Juta
14	DREAMWEAR	2025.01.14			3,5 Juta
15	WOOSHIN GARMAENT	2025.01.15			3,5 Juta
16	TPINC TRADING	2025.01.15		30 Juta	
17	KAHOINDAH	2025.01.16			3,5 Juta
18	GAYA INDAH KHARISMA	2025.01.16	15 Juta		
19	OROM CONSULTING	2025.01.16	15 Juta		
20	DASAN PAN PICIFIC	2025.01.16			3,5 Juta
21	DTL	2025.01.17	15 Juta		
22	KEUMKWANG	2025.01.17	15 Juta		
23	TUNGGAL INDOTAMA ABADI	2025.01.17	15 Juta		
24	BOSUNG	2025.01.17			3,5 Juta
25	DOOSAN CIPTA BUSANA	2025.01.17		30 Juta	
26	ZIMMOAH MARINE TRANS	2025.01.17			3,5 Juta
27	ZIBEN INDONESIA	2025.01.17			3,5 Juta
28	JUN H INDONESIA	2025.01.20			3,5 Juta
29	GAYA MAKMUR	2025.01.20			3,5 Juta
30	HESED	2025.01.20	15 Juta		
31	PERTIWI INDO MAS	2025.01.20			3,5 Juta
32	L&B INDONESIA	2025.01.20			3,5 Juta
33	INDO BOX	2025.01.20			3,5 Juta
34	DONGJUNG	2025.01.21			3,5 Juta
35	KG FASHION	2025.01.21			3,5 Juta
36	SEJIN GLOBAL	2025.01.21			3,5 Juta
37	YOUNHEUNG MEGASARI	2025.01.22			3,5 Juta
38	CITRA UNGGUL PERKASA	2025.01.22	15 Juta		
39	KARYA TRI ABADI	2025.01.23			3,5 Juta
40	WINNER INTRNATIONAL	2025.01.24		30 Juta	
41	DELTA MATE MAJALENGKA	2025.01.25			3,5 Juta
42	DELTA MATE INDONESIA	2025.01.25			3,5 Juta
43	UNICORN MACHINE	2025.01.30			3,5 Juta
44	SCENIC INTERNATIONAL	2025.01.30			3,5 Juta
45	KNH GARMINDO JAYA	2025.01.30			3,5 Juta
46	HARINDO	2025.01.30			3,5 Juta
47	MAJUEL	2025.01.30			3,5 Juta
48	SOLVE IT	2025.01.31			3,5 Juta
49	MINU	2025.01.31			3,5 Juta
50	YB APPAREL JAYA	2025.01.31			3,5 Juta
51	HARAPAN GLOBAL	2025.01.31			3,5 Juta
52	JIN MYOUNG	2025.02.03			3,5 Juta
53	PELITA HARAPAN ABADI	2025.02.03			3,5 Juta
54	MANITO	2025.02.06			3,5 Juta
55	HANSAE INDONESIA UTAMA	2025.02.06		30 Juta	
56	JM TECH	2025.02.10			3,5 Juta
57	PETRA SAKTI	2025.02.10		20 Juta	
58	AMOS INDAH INDONESIA	2025.02.12			3,5 Juta
59	HANSOLL	2025.02.14		30 Juta	
60	AAM	2025.02.14			3,5 Juta
61	PERMATA GARMENT	2025.02.14			3,5 Juta
62	RINA JAYA GARMENT	2025.02.14			3,5 Juta
63	DONGYANG NISUSINDO	2025.02.14			3,5 Juta
64	C-SITE TEXPIA	2025.02.17			3,5 Juta
65	SAMKYUNG JAYA	2025.02.18			3,5 Juta
66	LIMANTARA INDAH	2025.02.18			3,5 Juta
67	ING INTERNATIONAL	2025.02.18			3,5 Juta
68	MUARA TUNGGAL	2025.02.18			3,5 Juta
69	KOREA VILENE	2025.02.19			3,5 Juta
70	DAYUP INDO	2025.02.20			3,5 Juta
71	SEOWON	2025.02.24			3,5 Juta
72	DAEHAN GLOBAL	2025.02.24		30 Juta	
73	SAMSHING INDONESIA	2025.02.24			3,5 Juta
74	SUKWANG INDONESIA	2025.02.25		26,5 Juta	3,5 Juta
75	TAEWON	2025.02.26			3,5 Juta
76	BUSANA INDAH GLOBAL	2025.02.27			3,5 Juta
77	PARAN INTERNATIONAL	2025.03.03			3,5 Juta
78	GOLDEN GARMENTS	2025.03.05			3,5 Juta
79	GLOBAL TRIMS CREATOR	2025.03.05			3,5 Juta
80	INKORDAN	2025.03.06		15 Juta	
81	ELITE	2025.03.07			3,5 Juta
82	WONEEL MIDAS	2025.03.07			3,5 Juta
83	HANSOL PLEATS	2025.03.07			3,5 Juta
84	GREENLON	2025.03.11			3,5 Juta
85	SUCI PINTAK PLEATS	2025.03.11			3,5 Juta
86	MUTIARA BUSANA INDAH	2025.03.12	15 Juta		
87	BLUE SEA GLOBAL	2025.03.12			3,5 Juta
88	KIDO MULIA INDONESIA	2025.03.12			3,5 Juta
89	PESAT GLOBAL	2025.03.14			3,5 Juta
90	YONGJIN	2025.03.18			3,5 Juta
91	SUN SUKA ABADI	2025.03.20			3,5 Juta
92	GUNUNG SALAK SUKABUMI	2025.03.20			3,5 Juta
93	TA GLOBAL	2025.03.24			3,5 Juta
94	WORLD STAR GARMENT	2025.04.28	15 Juta		
95	SJ CONSULTING	2025.05.09			3,5 Juta
96	HJ BUSANA INDAH	2025.05.22			3,5 Juta
97	HWASHIN GLOBAL	2025.05.23			3,5 Juta

부산대 이건희/서울대 박성준 교수 공동연구팀 50m 전자섬유 개발해 스마트 의류 구현 성공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이건희 교수팀이 서울대 박성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로 50미터급 신축성 전자섬유를 연속 생산하고, 이를 실제 착용 가능한 스마트 의류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는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이건희 교수팀이 서울대 박성준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로 50미터급 신축성 전자섬유를 연속 생산하고, 이를 실제 착용 가능한 스마트 의류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섬유'는 사용자 친화적인 웨어러블 소자와 헬스케어 기기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아 왔지만, 기존 섬유형 전극은 인체의 움직임에 취약해 내구성과 전기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기계적 변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액체금속(Liquid Metal, LM) 기반 전도성 소재가 연구되고 있으나, 누액(leakage) 위험과 대면적 생산의 어려움으로 실제 의류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체금속 입자(LMP, Liquid Metal Particle)를 기능화된 고분자(TPU)로 감싸는 복합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고출력 소니케이션(sonication, 초음파 처리 분해/응집)을 이용해 고분자 사슬의 말단을 화학적으로 활성화하고, 입자 간 물리적 응집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상분리(flocculation) 구조를 형성했다.

그 결과, 전도성 영역과 기계적 지지 영역이 이중 구조로 분리된 섬유가 완성돼 누액 없이 안정적인 전도성과 뛰어난 강인성, 신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섬유 여러 가닥을 정밀하게 꼬아내는 비틀림 섬유(TSFtw) 구조를 도입해, 실제 봉제가 가능할 정도의 두께와 기계적 강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옷감 위에 바느질하듯 전자섬유를 통합할 수 있었으며, 전원, 센서, 처리 모듈 등 다양한 전자 부품을 안정적으로 연결해 운동 중에도 끊김 없는 작동을 구현했다.

개발된 섬유는 얇고 유연하면서도 기계세탁이나 1만 번 이상의 강한 스트레칭, 실생활의 반복적인 꺾임 동작 등에도 우수한 전기적/기계적 성능을 유지하며, 의료용 스마트 의류, 웨어러블 인터페이스, 디지털 제어 장치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실제로 이 섬유를 이용해 심박 측정 센서, 무선 키보드, IMU 기반 모션 트래커,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디지털 의류를 제작하고, 일상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작동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이건희 부산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능성 섬유 전극을 산업 규모로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라며 "섬유에 전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실제로 입고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 즉 '입는 컴퓨터'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 5월 9일자에 게재됐다. 베리타스알파

패션대기업, 고유브랜드 글로벌마켓 공략으로 돌파구 찾는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LF, 코오롱FnC... 해외 新시장 확대
LF, '헤지스' 글로벌 온라인 스토어 오픈 63개국 방문
삼성물산 패션, '에잇세컨즈' 필리핀 거점 동남아 노려
'코오롱스포츠' 중국 볼륨화, 일본은 이토추 상사와

삼성물산 패션부문, LF, FnC코오롱 등 국내 패션대기업들이 자사 브랜드의 글로벌 마켓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LF의 대표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HAZZYS)'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도와 중동 등 신규 시장진출도 본격화한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새롭게 오픈했다.

헤지스의 글로벌 공식 온라인 스토어는 영문과 중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브랜드의 전 세계 매장정보, 플래그십 스토어 소식, 캠페인 아카이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테스트 오픈만으로 63개국에서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가 모아진다.

전 세계 헤지스 매장의 위치 검색, 플래그십 스토어 주요 소식, 글로벌 캠페인 아카이브 등 브랜드 콘텐츠를 다양한 언어로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코너도 마련됐다. 또한 미국,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등 기존 헤지스닷컴 해외 유입이 많았던 국가에서는 헤지스의 주요 제품을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으며, 배송 가능 국가는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에잇세컨즈'로 올해 필리핀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에잇세컨즈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현지 초대형 쇼핑몰인 'SM 몰 오브 아시아'(SM Mall of Asia)를 시발점으로 올해 3개의 매장을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에잇세컨즈의 해외진출은 지난 2016년 중국 진출 이후 10년 만의 재도전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에 따르면 '에잇세컨즈'는 국내를 기반으로 태생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런칭한 브랜드로서 동남아 시장을 1순위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필리핀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마닐라 1호점을 시발로 시장테스트 및 진출에 속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현재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빈폴, 준지, 라피도로 해외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다. 준지는 중국 상해에 단독매장 운영을 비롯해 유럽과 동남아, 북미 지역에서 홀세일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에잇세컨즈는 필리핀 마닐라에 1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연내 3개점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으로의 마켓 확대를 추구한다.

코오롱FnC의 '코오롱스포츠'도 중국과 일본을 공략하고 있다. 코오롱FnC의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지난 2017년 중국의 안타그룹과의 합작으로 '코오롱스포츠 차이나'를 설립하고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지난해 중국 내 매장수는 191개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225개까지 확대한다. '코오롱스포츠'는 일본에서도 이토추상사와 라이선스 및 유통계약을 맺고 진출을 확대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해외에서 K-패션에 대한 호감도 증가와 함께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의류매출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지속 감소를 반영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해외 브랜드 전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별 외형성장과 내실 강화의 균형감을 유지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관련업계는 "기업들의 고유브랜드 강화 및 해외 진출 확대는 최근의 영업이익 감소 및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실적을 개선하려는 차원"이라며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TRADE MARK U.F.O

PT. YOU YEOUNG EMBROIDERY

최고수준의 품질과 뛰어난 광택!

100%의 폴리에스터 자수사로
원사 구매부터 연사, 염색, 와인딩, 품질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영 EMB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현재 약 1,500여 가지 색상
약 25만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수십 년 동안 거래 경력으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 도
신발, 가방, 모자, 텐트,
장갑, 의류, 침대, 소파,
시트, 특수편사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제품명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자수사
50D / 2합 (5,000M)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재생사. Recycled)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밑실
75D / 2합 (144M)
스판 밑실
60S / 2합 (5,000M~50,000M)
주문생산 : 인견사 120D / 2합

PT. YOU YEOUNG EMBROIDERY
Kawasan Industrial Millenium Jalan Millenium 12 Blok F2 No. 7 Kel. PeusarKec. Panongan, Kab. Tangerang – Banten 15710
Tel. +62 21-599-2386 Mobile. +62 822-4980-4125 Email. ufoemb@youyeoung.com

삼익악기 · 재인니 서울대 동문회, JIKS에 교육 기자재 기증

"선생님께는 선명한 시선을, 학생들에게는 아름다운 소리를"

▲삼익악기 · 재인니 서울대 동문회, JIKS에 교육 기자재 기증 행사(사진=JIKS)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학교장 이선아, 이하 JIKS)는 5월 23일(금), ㈜삼익악기와 재인도네시아 서울대학교 동문회로부터 교육기자재를 기증받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JIKS 이선아 교장, 김경국 이사장을 비롯해 재인니 서울대학교동문회 배도운 회장 및 정무웅 동문, 삼익악기 김준형 법인장, 초중고 학부모 대표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삼익악기에서는 어쿠스틱 기타 35대를, 재인도네시아 서울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업무용 모니터 43대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JIKS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다양한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이루어졌다.

JIKS 김경국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기증이 우리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인니 서울대학교 동문회 배도운 회장은 "모니터 기증을 통해 수업 준비와 업무로 바쁘신 선생님들의 업무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JIKS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익악기 김준형 법인장은 "음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성이 더욱 풍부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필요한 악기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KS 이선아 교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학생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도 참석해 기증식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JIKS는 이번 기증을 계기로 음악 교육 및 ICT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자카르타경제신문]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정겨운 우리말

누비다 : 두 겹의 피륙으로 안팎을 만들고 그 사이에 솜을 넣어 죽죽 줄이지게 박다.
이리저리로 거리낌 없이 다니다.
예)태호는 종합시장을 누비고 다녔어.
그 옷은 겨울에 입을 것이니 솜을 넣고 잘 누벼.

눅다 : 굳거나 뻣뻣하던 것이 무르거나 부드러워지다.
예)봄비에 땅이 눅었다.

눈가림 : 겉만 꾸며 남의 눈을 속이는 일
예)태호의 마술은 모두가 눈가림이었어.

눈땜 : 갈라진 틈이나 작은 구멍 따위를 메워 채우는 일

눈비음 : 남의 눈에 들기 위하여 겉으로만 꾸미는 일

눈자라기 : 아직 꼿꼿이 앉지 못하는 어린아이
예)눈자라기를 업고 밥함지를 이고 가는 농촌의 여인

눈찌 : 흘겨보거나 쏘아보는 눈길
예)모두 다 적의에 가득 찬 눈찌였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외 50여권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MEMPERINGATI HARI ANAK2 DAN KELUARGA

함께하는 우리,
더 따뜻한 세상!

우리 가족, 우리 이웃, 함께 웃는 날!

모두가 주인공인 우리 동네 큰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TGL) : 2025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TGL 27 JUNI, 2025 HARI JUMAT JAM 10:00
장소(Tempat) : Aula Serba Guna
CITRA RAYA SPORT CLUB(Bundaran 3)

문의 : 0813 1850 7850 유두선 총무(CTK)
0816 1733 1396 김어진 사무장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9 4208 7976
(Cab. Kcp Citra Raya)
YAYASAN WARGA KELUARGA INDONESIA

주최 : 재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후원회 (회장 : 최진덕)
주관 : 찌뜨라 땅그랑 코리안(CTK)
후원 : 재외동포청 /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
KORINDO / PT. SENGDAM JAYA ABADI / PT. PARKLAND WORLD INDONESIA
PT. KODASINDO TATASARANA / PT. KMK GLOBAL SPORT / 무궁화 유통
PT. MITRA CMB INDONESIA / PT. KUKDONG PERDANA INDONESIA
PT. KORIN TECHNOMIC / PT. JOA INDUSTRIES / PT. KORIN COOKWARE
PT. SINAR MASANDA INDUSTRI /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 / 재인니 한국 봉제협회

재외동포청 KORINDO KMK GROUP PARKLAND KOFA (주)성답 SMI MU GUNG HWA

CompKorea Air Compressor

혁신적 탄소배출량 및 전기료 절감 실현

베트남 2공장의 현지 경험으로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주요생산품목

급유식 공기압축기 (Oil-Type)
·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인버터형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2단압축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 ~ 250kW (50 ~ 350HP)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Oil-free)
· 오일프리 스크롤 공기압축기
- 2.2 ~ 40kW (3 ~ 60HP)
· 인버터형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kW ~ 450kW (50 ~ 600HP)
· 인버터형 오일프리 저압 공기압축기
- Blower (0.4 ~ 1.5bar)
- Low Pressure Compressor (1.5 ~ 3.5bar)

진공펌프 (Vaccuum Pump)
· 스크류 진공펌프

압축공기 제습장치
·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
·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 라인쿨러
· 에어필터

PT. COMPKOREA TEHNIK INDAH
Ruko Karawaci Office Park, Pinang Utara, Panunggangan Barat Cibodas Tangerang, Ruko H-25 | Lippo Cikarang지점 | 한국본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127-14 (가재리 396-6)
김태봉 법인장 : +62-811-932-689 E-mail : kimtb160@gmail.com / ptcompkorea@gmail.com | 홍창선 이사 : 082113702540 | M. +82-10-2504-6443 E-mail : jr@compkorea.com

주요브랜드 2025 광고촬영스토리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아틀리에 나인, 컨템포러리한 여유의 미학

아틀리에 나인이 컨템포러리한 여유의 미학을 담은 '더 아카이브'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내 삶의 행복한 순간들을 위해 나만의 스타일과 감성을 아카이빙하는 아틀리에 나인의 브랜드 콘셉트를 한층 더 확장해 동시대적 감각과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타임리스한 미학과 편안함을 조화롭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아르켓, 에센셜 레이어의 재해석

아르켓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에센셜 아이템들을 출시한다. 부드럽고 탄탄한 면 소재 등 신중하게 엄선된 소재와 세심하게 고려된 실루엣이 더해진 여성 티셔츠 캡슐 컬렉션은 손쉬운 스타일링에서 기본이 되는 아이템을 제안한다. 이번 티셔츠 컬렉션은 볼륨감과 소재의 대비, 독특한 디테일을 실험적으로 풀어냈다.

토템, 시대를 초월한 절제미와 가능성

토템이 특유의 시대를 초월한 절제미와 가능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2025 섬머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스웨덴 출신 포토그래퍼 미카엘 얀손이 촬영하고, 스타일리스트 카밀라니커슨이 스타일링을 맡았다. 캠페인은 가을에 오픈 예정인 파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컬렉션의 리듬감 있는 실루엣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로레나 안토니아찌, 일교차 대비한 라이트 웨이트 아우터

로레나 안토니아찌가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 적합한 라이트 웨이트 아우터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아우터는 가벼운 무게감으로 여행 시 휴대가 용이하며, 넉넉한 포켓 디테일을 더해 실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브랜드 특유의 우아함과 모던한 감성을 기반으로 캐주얼한 요소를 더해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다.

HANSHIN

에어 콤프렛서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